

종합·해설

공안당국, 장민호 '마당발 행보' 수사

정계·IT업계 간첩활동 규명 초점

통일상·공작금 등 받은 경위 밝히기 국방관련 與 중진의원 면담 의혹도



'일심회'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민호씨. MBC 화면 촬영.

와 자기 회사 직원인 이진강(43)씨를 우선 일심회에 끌어들였으며 여권인사 A씨의 소개로 민노당 전 중앙위원인 이정훈(43)씨를, 또 손씨를 통해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1)씨를 잇따라 포섭했다는 것.

아울러 장씨가 북한으로부터 '조국통일상'을 받게 된 경위 및 배경과 1989년 첫 임박북 당시 받은 것으로 알려진 1만달러 등 모두 1만9천달러의 공작금의 용처를 캐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장씨가 북한 대외연락부 공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이정훈씨와 손정복씨가 민족통일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니 베이징에서 접선하자"는 내용을 확보하고 이들의 수상 배경 및 활동 상황도 추적하고 있다. 정치권 등도 장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이밖에 장씨가 대학 후배인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관을 통해 국방 관련 여권 중진위원을 수차례 면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남뉴스



미소 띤 판문점 北 장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1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외국인 안내를 맡은 한 북한 장교가 모처럼 만에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남뉴스

“참여정부 들어 지역불균형 더 심해졌다”

전남자금 11조5천억 수도권 유출

민노당 심상정의원 주장 전남지역 자금의 수도권 유출이 전국적으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7월말까지 전남에서 조성된 전체 자금(32조4천억원)의 3분의 1을 넘는 11조5천억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것을 비롯 지방권에서 조성된 자금(468조원) 지방권의 '돈가람'을 부채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일 국감자료를 통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금융기관의 총 수신은 1천 248조원으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468조원 중 130조원이 역외, 즉 수도권으로 유출됐다”고 말했다. 전남 자금의 수도권 유출액(11조5천억원)은 액수만을 놓고 보면 경북(17조3천억원), 부산(15조6천억원), 대구(14조3천억원)에 이어 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체 중 4위에 해당하지만 조성자금에 대한 비율로 보면 35%로 사실상 수도권 유출액이 가장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25조6천억원) 중 수도권 유출액은 4조3천억원(16%)에 달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연구개발 예산·인력 수도권 집중

한나라 이한규의원 주장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예산과 외국인의 투자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올해 국가 R&D 예산 4조8천억원 중 수도권과 대덕 지역의 73.8%가 배정됐고 지난해 말 현재 R&D와 기술 등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인력의 6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 대출 증가액의 70.4%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조달청의 조달사업도 수도권 업체 비중이 참여정부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난해에 달 현재 각각 62.6%와 9.0%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5.2%와 9.1%로 증가했지만 충북, 전남, 충남, 대구, 울산 등 대부부 지역의 비중은 감소했다”면서 “외자유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여야 대선후보 광주서 잇단 강연

이명박 전 서울시장,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천정배 전 법무장관 등 대선 주자들이 2~3일 광주·전남을 잇따라 방문, 강연 정치를 한다.

이 전 시장은 2일 오전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젊음의 문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 전 시장은 강연을 마친 뒤 나주시청에서 열리는 ‘영산강 학술 심포지엄’과 광주에서 열리는 뉴 라이트 광주·전남

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별관 강의실에서 응용포럼 특강을 실시한다. 정 전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북한 핵 실험 이후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그는 강연을 끝내고 학생들과 호프집에서 정치·경

제 등에 대해 자유 토론도 가질 계획이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천 전 장관도 3일 오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 경영자총회 초청 강연을 한다. 천 전 장관은 이날 ‘민생개혁정치와 희망의 경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여러 신당 창당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뉴라이트 광주·전남연합

오늘 창립대회 가져

뉴라이트 광주·전남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라이트 광주·전남연합 창립대회를 갖는다.

오늘 9일 창립 1주년을 앞둔 전국연합을 이번 창립대회를 통해 그간 ‘취약세’를 보였던 호남지역에 뉴라이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전국연합의 ‘전국적 조직화’를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사설·매일·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번호: 001-107-228160. 팩스: 062-227-9500.

회사분할 및 건설업양도공고. 2006년 11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 자평동 1202-2 현대캐피탈빌딩 310호 대외이사 김기영.

장기자금 예치은행 선정공고. 1. 예치은행 선정에 부치는 사항. 2. 신청자격. 3. 참가자격. 4. 제안서제출 및 서류심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 행정지원과(061-380-7343)로 문의하십시오.

산행안내. ▲모두투어(주) 중앙고속도로. ▲산행안내. ▲산행안내. ▲산행안내.

전남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전남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일정. 2. BK21 우수대학 육성사업 장학혜택.

‘뱃살’ ‘변비’ 고민 ‘개미허리 23인치’. 미국FDA의료기기등록, 복부·허리·등·허벅지·종아리에 간단히 착용만 하면 아찔 나도 뽀뽀!

광주지역의 각종 부동산 정보. ▲광주지역의 각종 부동산 정보. ▲광주지역의 각종 부동산 정보.

제권판결. 사 건 2006카공29. 신청인 이혜원. 피판 대상인 유영환. 2006년 11월 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영근(361128-1863211) 상속. 2006년 11월 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희.

건물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017-620-2311, 010-2255-2600.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5하민1197 면책. 파산자 신병철. 2006년 11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민284 면책. 파산자 이서미. 2006년 11월 2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민258 면책. 파산자 정길자. 2006년 10월 31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6하민143 면책. 파산자 김춘서. 2006년 10월 31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면책결정공고. 사 건 2005하민371 면책. 파산자 유영래. 2006년 10월 31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건물매매. 345평, 167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018-386-1186.

유비쿼터스정보기전사업단. Research Center for Ubiquitous Information Appliances. 교육인적자원부 2단계 BK사업에서 대항사업으로 선정된 유비쿼터스 정보기전사업단은 7년동안 총 약 70억원을 지원받아 우수한 전자·정보 통신 및 컴퓨터 관련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뱃살’ ‘변비’ 고민 ‘개미허리 23인치’. 미국FDA의료기기등록, 복부·허리·등·허벅지·종아리에 간단히 착용만 하면 아찔 나도 뽀뽀! 운동하기 싫은 분, 허리·무릎관절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부모님께 선물로 큰 인기!